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만족도 및 교육과정 개선요구에 관한 연구¹⁾

박주호²⁾·유기웅³⁾

〈목차〉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논의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교양교과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41개 대학 소속 교수 125명 및 학생 135명, 그리고 국내 20개 대 기업 소속 대졸직장인 181명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의 개념 및 내용적 차원의 범위에 관한 인식 정도, 교

- 1) 이 논문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 의해 수탁 받아 수행된 손동현·박주호·유기웅·정종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2.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2) 한양대학교, 제1저자.
- 3) 숭실대학교, 연결저자.

육만족도, 그리고 교양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우선, 교양교육의 개념적 범위 인식정도와 교양교육 만족도 조사를 위해 교양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들 간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재 실태 수준(as-is)과 바람직한 미래수준(to-be)을 측정하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교양교육과정 개선 요구도 자료는 IPA(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양교육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인식의 경우, 교수집단이 학생 및 직장인 집단에 비하여 ‘전인적인 인격체로서의 인간형성에 초점’을 두거나 ‘전공교육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보편적 지성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면에서 더 높은 인식을 보여 주었다. 반대로 학생이나 직장인의 경우, 교양교육을 응용학문이나 실용적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세 집단 모두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 주었고, 특히 학생집단 보다 교수집단이 보다 더 낮은 만족도를 보여 주었다. 교양교육에서 다뤄야 할 내용에서는 세 집단 모두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문학, 역사, 철학, 언어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을 예체능 영역이나 진로취업 분야 보다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양교육과정의 개선 요구도에 있어서도 세 집단 간에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 교과 면에서 인류의 지적 유산과 관련된 고전적인 내용 반영 교과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최신 내용을 반영 교과목을 보다 더 많이 편성해야 함을 요구도로 보여 주었다. 그리고 교양교육을 저학년에 만 편중해서 편성 운영하기보다는 대학 전 학년에 골고루 편성할 필요가 있음도 개선 요구사항으로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학교양교육과 관련하여 교수, 학생, 직장인 간에 개념 및 내용범위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과, 세 집단 모두 교양교육의 낮은 만족도,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편성할 교과목과 학년별 교양교과목 편성에 있어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제어〉 교양교육,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교양교육과정 개선요구, 교양교육 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전공교육 중심의 특화된 전문직업교육에 상당히 열중해 왔다⁴⁾. 이는 상대적으로 대학교육의 중요한 축인 교양기초교육을 토대로 한 일반적 보편지성교육은 등한시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불균형화된 대학교육이 널리 시행되어온 이유와 관련하여, 손동현⁵⁾은 특정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단기간 내에 대폭적으로 학습-수용하여 급속한 국가사회를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교육-사회적 이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산업화, 정보화 사회를 이어 디지털 혁명 시대의 한 가운데서 큰 변화의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혁명은 지식지형의 변화 또는 새로운 지식패러다임을 불러오고 있다. 새로운 지식패러다임의 핵심은 한마디로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⁶⁾. 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지식이 융합하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특정 전공분야의 전문지식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어, 여러 영역을 종합적으로 사유하여 창의적 발상을 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능력이 요구된다⁷⁾⁸⁾. 결과적으로 지식을 다루고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의 지형을 새롭게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은 디지털 혁명이라는 흐름에서 새로운 지식패러다임에 따라 교육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즉, 대학

4) 손동현,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균형과 수렴에 관해」, 『교양교육연구』 제4권 2호, 2010, 19-27쪽.

5) 손동현, 앞의 논문, 2010, 19-27쪽.

6) 손동현, 「융복합교육의 기초와 학부대학의 역할」, 『교양교육연구』 제3권 1호, 2009, 21-32쪽.

7) 손동현, 「분과학문과 교양교육의 불협화, 그 연원과 현실 그리고 전망」,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 31-41쪽.

8) 이은숙, 황혜영, 「융복합교양교육의 토대로서의 창의성」, 『교양교육연구』 제7권 2호, 2013, 103-136쪽.

교육에서는 각 학문분야의 지식을 폭넓고 깊이 있는 안목에서 조망하고 연결시켜 주는 ‘지적 연결지평’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융복합교육의 기초로서 대학 교양교육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부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학 교양교육은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평구⁹⁾는 우리나라의 대학 교양교육이 정체성 확립 문제와 대학별로 개별화되고 특성화된 교양교육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양교육의 정체성 문제는 주로 개별 대학 차원에서 교양교육이 왜 필요로 하는가 하는 교육목적의 문제(개념적 의미)와, 무엇을 교육시켜야 하는가 하는 교육내용의 문제, 그리고 운영 주체인 대학이 구체적으로 무슨 교과를 어떻게 편성하고 이수토록 교양교육을 운영하는가 하는 교육과정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는 교육수요자나 대학교육의 여러 관련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중국에는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학 교양교육의 정체성 혼란의 문제는 학문적 차원에서 독립된 연구분야로서의 위상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와 해당 학계에서의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교양교육의 위상과 본연의 모습에 대한 교양교육 현장의 실제 관련자라 할 수 있는 교수자(교수, 강사)와 학생,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 중 대학내외의 관련자들이 갖고 있는 통념 내지 편견 및 몰이해가 무엇인지를 규

9) 백평구, 「교양교육 만족도, 교육적 경험, 학습 성과에 대한 인식: A대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6권 1호, 2012, 431-466쪽.

명해 내는 일은 대학이 교양교육을 강화하고자 할 때 긴히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시사점을 제공해줌으로써 적실성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까지 대학 교양교육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은 교양교육의 발전 방향과 큰 틀을 제시하는 연구들¹⁰⁾¹¹⁾¹²⁾¹³⁾¹⁴⁾¹⁵⁾과, 대학별 교양교육과정의 분석 및 사례연구들¹⁶⁾¹⁷⁾¹⁸⁾¹⁹⁾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자는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른 교양교육의 중요성 강조, 교양교육과정 운영에서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강화 대책에 관한 담론적 연구들이다. 후자의 경우는 각 개별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을 분석하거나 특정 교양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를 논의한 연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양교육의 내실화 및 발전을 가능토록 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양교육의 위상 강화, 대학교의 학사 구조적 문제에 따른 영향, 교양교육과정의 구조 및 분석,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의 발전방향

-
- 10) 강창동,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제18권 2호, 2012, 83-107쪽.
 - 11) 김순임·이효성·김현정·서명희, 「대학 교양교육의 흐름과 발전 방안 - 전남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7권 1호, 2013, 11-39쪽.
 - 12) 서남수,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구조적 난점과 과제」, 『교양교육연구』 제4권 2호, 2010, 1-18쪽.
 - 13) 손동현, 앞의 논문, 2010, 19-27쪽.
 - 14) 이숙정·이수정,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역량기반 교양교육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6권 2호, 2012, 11-42쪽.
 - 15) 홍병선, 「대학교육의 현실과 사회적 요구」, 『교양교육연구』 제6권 2호, 2012, 269-291쪽.
 - 16) 남식용·이병철, 「교양기초교육과정 운영 사례: 성균관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3권 1호, 2009, 145-166쪽.
 - 17) 민준기·김순임, 「과정과 문화 중심의 교양교육 개선」, 『교양교육연구』 제6권 3호, 2012, 11-47쪽.
 - 18) 염철, 「대학 교양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양논총』 제4권, 2011, 49-66쪽.
 - 19) 이은화,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편성 운영체제 사례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제8권 2호, 2007, 91-118쪽.

에 관한 담론적이고 선언적 차원에서 고찰 또는 교육과정에 대한 외적 요인의 변화의 탐색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교수,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현행 교양교육에 관한 인식정도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양교육의 개념과 다루어지는 교육 내용에 대한 관련자의 인식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요구도 및 교육 만족도 수준은 교양교육의 현재모습을 돌이켜 보고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수립하기 위한 준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양교육의 개념과 내용, 교육과정에 대한 제공자 및 수요자의 전반적인 인식 정도의 탐색은 교양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교양교육이 전인적인 인격체로서의 인간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분야의 전공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대학 교양교육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교양교육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대학생 기초교육, 예체능 체험교육, 실용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교양교육과정의 현실적 모습과 미래 바람직한 모습의 파악을 통해 교육과정 개선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있어 교수와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교수와 학생의 의견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양교육 내용의 현실적 유용성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듯 교양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련자 수준의 기초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된 실증연구는 교양교육의 질적 수준 분석을 기초로 개별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의 만족, 교육적 경험 및 학습성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백평구²⁰⁾의 연구와 대학생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이보경·김은경·이재성

20) 백평구, 앞의 논문 2012, 431-466쪽.

21)의 연구 등 소수에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에서 교양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교수, 강사), 대학생,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의 개념적 및 내용적 차원의 범위에 관한 인식 정도, 그리고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현재 수준 실태와 미래에 바람직한 당위 수준을 비교하는 교육과정 개선 요구도와 교육만족도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교양교육의 개념적 의미와 교육내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그리고 교육과정 개선 요구도와 교육 만족도 조사는 교양교육관련 학문발전에 기초 지식을 두텁게 하고, 실제 대학 별 교양교육편성 운영에 필요한 지식, 정보, 착안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양교육의 개념 및 주요 이슈

교양교육은 일반적으로 '교양교육, 일반교육, 일반교양교육, 자유교육, 인문교양교육, 기초교육, 교양기초교육, 공통기초교육, 전공기초교육'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 대학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합의된 정의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²²⁾²³⁾. 이는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폐지되면서 공식적인 교육정

21) 이보경·김은경·이재성, 「대학생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문제연구』 제38권, 2010, 1-23쪽.

22) 강명구·김지현, 「한국 대학의 학사구조 변화와 기초교양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과제」, 『아시아교육연구』 제11권 2호, 2009, 327-361쪽.

23) 백승수, 「한국 고등교육의 교양교육과정 형성과정 분석」, 『교양교육연구』 제6권 4호, 2012, 321-352쪽.

책상의 규정을 찾기 어렵게 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²⁴⁾.

교양교육의 개념 및 목적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과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으로서의 교양교육과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과 전문교육(special education)으로서의 교양교육으로 대별된다. 일반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은 지·정·의를 고루 함양하여 전인적 인격체를 형성하게 해주는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자유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전문교육이 아닌 인간 본연의 자유를 추구하며 폭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문주의 중심의 교육을 의미한다²⁵⁾.

최근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보다 고차적인 사고 능력이 요구되면서 이와 같은 일반교육과 자유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양교육의 목적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많아 세부적인 교육목표 간에 연결성이 부족하고 대학의 교양교육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²⁶⁾²⁷⁾.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학 교양교육의 목적과 역할의 재정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양교육 고유의 역사적인 배경과 위상에서 비롯되는 목적과 역할이 현대 대중화된 대학교육에 적절히 부합할 수 있는 교양교육의 실제적인 가치와 실효성을 중시하는 실용성, 그리고 다양한 학문 간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는 새로운 지적 지형의 형성과정과 충돌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

24) 이은화, 앞의 논문, 2007, 91-118쪽.

25) 이보경·김은경·이제성, 앞의 논문, 2010, 1-23쪽.

26) 백승수, 앞의 논문, 2012, 321-352쪽.

27) 서남수, 앞의 논문, 2010, 1-18쪽.

2. 대학 교양교육과정

최근 국내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학부제’ 체제를 도입하여 교양교육 전담기구 및 조직을 설치하고 교양교육과정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추세지만, 각 학과마다 별도로 교양교육과목을 편성하여 운영되는 ‘학과제’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²⁸⁾. 강명구와 김지현²⁹⁾은 이러한 혼란의 원인으로 제도의 실행과정상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교양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 즉, 철저한 현황 분석, 유연한 학사구조의 모색, 그리고 교양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사회와 개인의 명확한 인식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양교과목의 특성은 단일 교과, 학제적 성격의 교과, 교과 외 성격의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교양교육과정은 교과목의 이수 방식에 따라 자유선택제, 배분이수제, 중핵교육과정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³⁰⁾. 자유선택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수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배분이수제는 학문 영역 별로 일정 수의 이수과목을 정해 놓고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³¹⁾. 이러한 이수 방식은 다양한 학문 영역들을 균형 있게 습득하고 학생이 일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내 대학들이 배분이수제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중핵교육과정은 모든 학문 분야의 바탕을 이루는 공통된 학습영역을 이수하도록 하여 학문적 기본소양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미국의 많은 우수한 대학들이 선택하고 있는 형태이며, 이를 통해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이 서로 다

28) 강명구·김지현, 앞의 논문, 2009, 327-361쪽.

29) 강명구·김지현, 위의 논문, 2009, 327-361쪽.

30) 손동현, 앞의 논문, 2010, 19-27쪽.

31) 이은화, 앞의 논문, 2007, 91-118쪽.

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탐구의 기본소양인 비판적 사고력과 지적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³²⁾.

이제까지 국내 교양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직업교육’, 즉 전공교육에 구심점을 두고 이루어진 탓에 교양교육은 단지 전공교육을 위한 입문과정으로서 이해되어왔으며³³⁾³⁴⁾, 교양교육과정의 영역들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변순용, 김민수, 2012). 그러나 교양교육과정의 구성과 조직에 관하여 어떠한 운영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동현(2010)은 전공교과과정에서 교양과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전공과목들을 선별하여 전공과 교양영역에 모두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된 대학교육과정으로서 모든 학생들이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및 기초 자연과학 분야 등을 균형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변순용과 김민수³⁵⁾는 기초교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무엇보다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는 교양교육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교양교육과정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학문 영역 간에 통합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한편, 김원형³⁶⁾은 ‘역량개발’과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양 필수 과정의 트랙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적 교양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대체로 학문

32) 최미리, 「한·미 주요 대학의 교양교육 비교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18권 2호, 2000, 269-328쪽.

33) 손동현, 앞의 논문, 2010, 19-27쪽.

34) 이은화, 앞의 논문, 2007, 91-118쪽.

35) 변순용·김민수, 「교육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6권 4호, 2012, 203-236쪽.

36) 김원형, 「교양 필수 과정의 트랙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적 교양 교육 개발」, 『교양교육연구』 제2권 1호, 2008, 33-61쪽.

영역간의 경계를 완화시킴으로써 통합되고 자유로운 사고를 가능케 하는 융복합적인 교육과정으로의 접근을 교양교육과정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이 가진 목표와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교양교육 관련 인식조사 및 만족도 선행연구

최근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의 학제 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³⁷⁾. 개편된 교양교육과정의 적실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 수요 및 학습자의 요구 반영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공교육에 비해 교양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 및 인식 조사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 중에서, 정치봉³⁸⁾이 수행한 교양기초교육과정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비교 연구에서 먼저 교양기초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 및 교수의 절반 가까이(학생집단 47.4%, 교수집단 42.2%)가 불만족 한다고 답했으며, 교수보다는 학생이 교양 및 기초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양기초교육과정의 개편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교수와 학생들이 전임교수가 교양 및 기초교육과정을 담당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교수가 교양 및 기초교육과정 강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대학생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이보경, 김은경, 이재성³⁹⁾의 연구에서 역시 학생들이 교양교육의 중요성은 인식

37) 백승수, 앞의 논문, 2012, 321-352쪽.

38) 정치봉, 「교양·기초교육과정에 대한 교수·학생의 인식 비교 - 설문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순천향자연과학연구』 제8권 2호, 2002, 123-132쪽.

39) 이보경·김은경·이재성, 앞의 논문, 2010, 1-23쪽.

하고 있었으나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임교수의 교양교육 강의 비율 확대, 수강학생의 규모 축소, 다양한 교과목 개설 등의 요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교양교육의 내용 및 방법적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보다 고차원적인 지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사실이나 정보를 단순히 기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학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및 강의 선택 관련 요인을 분석한 유기웅과 신원석⁴⁰⁾의 연구에서는 교양교육과정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강좌 구성'이 학생들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교과목, 이론 및 실습의 적절한 배분, 단계별/수준별 구성, 학문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의 균형 있는 편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강의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과 '개인 능력 신장 및 지원 시설'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명확한 교육 목표, 다양한 수업방법, 의사소통, 피드백, 상호작용' 등이 강의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교양교육의 만족도 및 인식 조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교수 및 학생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한 교과목과 교수학습 및 교육내용의 질적인 제고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 유기웅·신원석, 「대학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및 강의 선택 관련 요인 분석」, 『교육문제연구』 제45권, 2012, 31-54쪽.

III. 연구방법

1. 설문대상

본 연구에서는 교수, 대학생,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무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대학시절 이수한 교양교육이 실제 직무 현장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어떻게 성찰되는지와 대학 교양교육의 효과성을 학습전이 맥락에서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이들 조사 대상에 대해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전국의 일반 4년제 대학을 규모 및 지역별로 분류한 후 무작위로 50개 대학을 선택하였다. 원활한 설문수합을 위해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협조를 얻어서 실제적으로 설문조사에 협조가 가능한 41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각 대학의 학과장 또는 학과 행정조교들에게 협조 메일을 보내어 교수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직장인의 인식 조사를 위해 전국의 기업체를 규모 및 지역별로 분류한 후 무작위로 20개 기업을 선택하여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온라인으로 수합된 설문조사 결과, 전국의 41개 대학교 125명의 교수들과 135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직장인은 18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2. 설문지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조와 내용, 해당 문항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설문지는 교수, 학생, 직장인용으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설문지의 앞부분에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설문분석

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구분	문항	총 문항	형식
교양교육 개념 및 범위	-교양·기초교육은 다양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전인적인 인격체로서의 인간형성에 초점 -교양·기초교육은 특정분야의 전공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 -교양·기초교육의 목적은 전공교육을 지원하는데 있고 대학교육에서는 전공교육이 더 중요시 -교양·기초교육은 학문 및 전공간 융복합 교육을 지향	6개	5점 Likert
교양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현재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	1개	5점 Likert
교양교육이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교육내용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대학생 기초교육(글쓰기, 말하기, 외국어 등) -현대사회의 주요 문제 -융복합적 탐색 교육 -예체능 체험 교육 -진로, 취업, 전공연계 교육 -봉사 등 사회활동 관련 교육 -실용교육(컴퓨터 등)	8개	다답형
교양교육 과정의 현실적 모습(as-is)과 미래 바람직한 모습(to-be) 정도(교육과정 개선 요구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본 교과목과 내용 편성 -직업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 분야의 교과목과 내용 편성 -인류의 지적인 유산과 관련된 고전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 편성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 편성 -교양교과의 저학년 단계에서 편성 실시 -교양교과의 전학년에 걸쳐 골고루 편성 실시 -교과목 관련된 전공학과에서 교양교과 개설 및 운영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개설 및 운영	16개	5점 Likert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에 재직 및 재학을 하고 있는 교수 및 학생과 대학

을 졸업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그 결과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을 살펴보고, 각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술하였다. 먼저 Likert 척도로 문항 구성된 교양교육의 개념적 범위 인식정도와 교양교육 만족도는 각 문항 별로 교양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직장인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SPSS18.0을 활용하여 일원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여 확인하였고, 전체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 사후검정(Scheffe)을 실시하여 구체적으로 개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재 실태 수준(as-is)과 바람직한 미래수준(to-be)을 측정하는 각 8개의 Likert 척도 문항으로 구성된 교양교육과정 개선 요구도 자료는 SPSS 18.0을 통해 IPA(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였다⁴¹⁾. IPA매트릭스 분석은 현재 수준(as-is) 대비 미래 바람직 수준(to-be)의 차이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요구도 분석(need analysis)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의 IPA 매트릭스 분석은 교양교육과정 운영의 현재 실태 수준을 세로(Y)축으로 설정하고, 미래 바람직스런 교양교육과정 운영 수준을 가로(X)축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교양교육과정 개선 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매트릭스 상에서 제4사분면에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IPA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실태 수준은 낮으나 미래 바람직스런 수준이 높은, 즉 교양교육과정 개선 요구도가 높은 요구 항목이 무엇인지를 판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학생 참여집단, 교수 참여 집단, 그리고 직장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IPA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고, 각 집단별 교양교육과정 개선 요구도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41) Martilla & Jame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제41권 1호, 1977, 77-79쪽.

IV. 연구 결과

1. 교양교육의 개념 및 범위

교양교육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교양·기초교육은 다양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전인적인 인격체로서의 인간형성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1.0%가 ‘그렇다(43.1%)’, 혹은 ‘매우 그렇다(47.9%)’ 라고 응답하였다. ‘교양·기초교육은 특정분야의 전공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5%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교양·기초교육의 목적은 전공교육을 지원하는데 있고 대학교육에서는 전공교육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0%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교양·기초교육은 국한된 전공교육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보편적 지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0%가 ‘그렇다(46.1%)’, 혹은 ‘매우 그렇다(35.9%)’ 라고 응답하였다. ‘교양·기초교육은 학문 및 전공 간 융복합 교육을 지향해야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9.6%가 ‘그렇다(47.4%)’, 혹은 ‘매우 그렇다(22.2%)’ 라고 응답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응답자의 연속적인 인식 수준의 스펙트럼으로 생각하여,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 인식수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양·기초교육은 다양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전인적인 인격체로서의 인간형성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에 대한 응답평균은 4.37이었고, ‘교양·기초교육은 특정분야의 전공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에 대한 응답평균은 3.04, ‘교양·기초교육의 목적은 전공교육을 지원하는데 있고 대학교육에서는 전공교육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 에 대한 응답평균은 2.96, ‘교양·기초교육은 국한된 전공교육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보

〈표 2〉 기초교양교육의 개념 및 범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교양·기초교육은 다양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전인적인 인격체로서의 인간형성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1	6	29	171	190	397	4.37
	.3	1.5	7.3	43.1	47.9	100.0	.708
교양·기초교육은 특정분야의 전공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30	101	117	121	28	397	3.04
	7.6	25.4	29.5	30.5	7.1	100.0	1.070
교양·기초교육의 목적은 전공교육을 지원하는데 있고 대학교육에서는 전공교육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	29	123	116	94	35	397	2.96
	7.3	31.0	29.2	23.7	8.8	100.0	1.092
교양·기초교육은 국한된 전공교육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보편적 지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4	22	45	182	142	395	4.10
	1.0	5.6	11.4	46.1	35.9	100.0	.882
교양·기초교육은 학문 및 전공 간 융복합 교육을 지향해야한다	4	27	90	188	88	397	3.83
	1.0	6.8	22.7	47.4	22.2	100.0	.885

단위: 명(%)

편적 지성교육이 되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평균은 4.10, ‘교양·기초교육은 학문 및 전공간 융복합 교육을 지향해야한다’에 대한 응답평균은 3.83으로 나타났다. 기초교양교육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교수, 학생, 직장인의 인식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기초교양교육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인식 차이

문항	교수 (a)	학생 (b)	직장인 (c)	F	유의 확률	Scheffe
교양·기초교육은 다양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전인적인 인격체로서의 인간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4.67	4.24	4.25	15.310	.000	a>b,c
	.661	.689	.695			
교양·기초교육은 특정분야의 전공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2.61	3.14	3.27	14.007	.000	a<b,c
	1.208	1.014	.913			
교양·기초교육의 목적은 전공교육을 지원하는데 있고 대학교육에서는 전공교육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	2.50	3.02	3.23	16.505	.000	a<b,c
	1.083	1.089	.998			
교양·기초교육은 국한된 전공교육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보편적 지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4.51	3.98	3.91	18.785	.000	a>b,c
	.769	.924	.832			
교양·기초교육은 학문 및 전공간 융복합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3.89	3.82	3.80	.349	.706	
	.993	.856	.828			

단위: 평균(표준편차)

분석 결과, ‘교양·기초교육은 다양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전인적인 인격체로서의 인간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문항에서는 교수 집단의 인식평균이 4.67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p<.001$), 직장인(4.25), 학생(4.2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양·기초교육은 특정분야의 전공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문항에서는 직장인 집단의 인식평균이 3.27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p<.001$), 학생(3.14), 교수(2.6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양·기초교육의 목적은 전공교육을 지원하는데 있고 대학교육에서는 전공교육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 문항에서는 직장인 집단의 인식평균이 3.23으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p<.001$), 학생(3.02), 교수(2.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양·기초교육은 국한된 전공교육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보편적 지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문항에서는 교수 집

단의 인식평균이 4.51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p < .001$), 학생(3.98), 직장인(3.9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양·기초교육은 학문 및 전 공간 융복합 교육을 지향해야한다’ 문항에서는 교수 집단의 인식평균이 3.89로 다른 두 집단인 학생(3.82), 직장인(3.80)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 = .706$).

2.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

교육만족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제공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되는 항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교육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하나의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통합적인 활동으로 이해하여 교육 제공자의 입장에 있는 교수 집단을 포함시켰으며, 직장인은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현실적 유용성 및 필요성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대학의 전반적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현재 대학의 전반적 기초교양교육에 대해 만족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4.5%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표 4> 현재 대학의 전반적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현재 대학의 전반적 기초교양교육에 대해 만족한다	26	121	163	39	2	351	2.63
	7.4	34.5	46.4	11.1	.6	100.0	.800

단위: 명(%)

Likert 5점 척도를 응답자의 연속적인 인식 수준의 스펙트럼으로 생각하여,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 인식수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대학의 전반적 기초교양교육에 대해 만족한다’에 대한 응답평균은 2.63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학의 전반적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교수, 학생, 직장인의 만족도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신분별 만족도 차이

문항	교수 (a)	학생 (b)	직장인 (c)	F	유의 확률	Scheffe
현재 대학의 전반적 기초교양교육에 대 해 만족한다	2.49	2.78	2.61	3.588	.029	a(b)
	.835	.832	.729			

단위: 평균(표준편차)

분석 결과, ‘현재 대학의 전반적 기초교양교육에 대해 만족한다’ 문항에서는 학생 집단의 인식평균이 2.78로 교수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p=.029$), 직장인(2.61), 교수(2.49)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교양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

교양·기초교육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문학, 역사, 철학, 언어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0.6%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 기초교육(글쓰기, 말하기, 외국어 등)’ 58.5%, ‘(환경, 평화, 생명 등) 현대사회의 주요 문제’ 42.2%, ‘봉사 등 사회활동 관련 교육’ 25.1%, ‘융복합적 탐색 교육’ 24.1%, ‘진로·취업-전공연계 교육’ 22.9%, ‘예체능 체험 교육’ 16.3%, ‘실용교육(컴퓨터 등)’ 14.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기초교양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

	인문사회 자연과학	대학생 기초 교육	현대사회 주요문제	융복합적 탐색	예체능 체험	진로취업 전공연계	사회 활동	실 용
교수	95	77	48	42	8	10	22	3
	21.5	17.5	10.9	9.5	1.8	2.3	5.0	.7
학생	79	75	64	24	32	47	31	32
	17.9	17.0	14.5	5.4	7.3	10.7	7.0	7.3
직장인	106	80	56	29	25	34	47	22
	24.0	18.1	12.7	6.6	5.7	7.7	10.7	5.0
계	280	232	168	95	65	91	100	57
	63.5	52.6	38.1	21.5	14.7	20.6	22.7	12.9

단위: 명(%)

신분에 따른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교수, 학생, 직장인 세 집단 모두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문학, 역사, 철학, 언어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이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전체의 21.5%, 17.9%, 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학생 기초교육(글쓰기, 말하기, 외국어 등)’의 응답비율이 17.5%, 17.0%, 18.1%로 높게 나타났다.

4. 대학 교양교육과정 개선 요구도

교양교육의 교육과정 관련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양교육 과정의 현실적 모습(as-is)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본적인 교과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7.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직업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분야의 교과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3.9%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인류의 지적인 유산과 관련된 고전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4.1%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3.3%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대학의 저학년(1,2학년)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5.9%가 ‘그렇다(53.4%)’, 혹은 ‘매우 그렇다(22.5%)’ 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대학의 전 학년(1, 2, 3, 4학년)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실시되고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8%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교양·기초교과목들은 교과목과 관련된 전공학과에서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9.3%가 ‘그렇다’ 라고 28.2%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교양·기초교과목들은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2.5%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응답자의 연속적인 인식 수준의 스펙트럼으로 생각하여,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 인식수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본적인 교과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 대한 응답평균은 3.50,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직업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분야의 교과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 대한 응답평균은 2.85,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인류의 지적인 유산과 관련된 고전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에 대한 응답평균은 2.86,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에 대한 응답평균은 2.83,

〈표 7〉 교양교육 과정의 현실적 모습(as-is)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본적인 교과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41	122	175	28	369	3.50
	.8	11.1	33.1	47.4	7.6	100.0	.821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직업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분야의 교과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125	146	78	8	369	2.85
	3.3	33.9	39.6	21.1	2.2	100.0	.864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인류의 지적인 유산과 관련된 고전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8	126	155	69	11	369	2.86
	2.2	34.1	42.0	18.7	3.0	100.0	.847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14	123	153	70	9	369	2.83
	3.8	33.3	41.5	19.0	2.4	100.0	.863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대학의 저학년(1,2학년)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4	30	55	197	83	369	3.88
	1.1	8.1	14.9	53.4	22.5	100.0	.886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대학의 전 학년(1,2,3,4학년)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실시되고 있다	40	191	88	40	10	369	2.43
	10.8	51.8	23.8	10.8	2.7	100.0	.918
현재 교양·기초교과목들은 교과목과 관련된 전공학과에서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다	28	104	110	108	19	369	2.96
	7.6	28.2	29.8	29.3	5.1	100.0	1.042
현재 교양·기초교과목들은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다	11	85	126	120	27	369	3.18
	3.0	23.0	34.1	32.5	7.3	100.0	.968

단위: 명(%)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대학의 저학년(1,2학년)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에 대한 응답평균은 3.88,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대학의 전 학년(1, 2, 3, 4학년)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실시되고 있다’에 대한 응답평균은 2.43, ‘현재 교양·기초교과목들은 교과목과 관련된 전공학과에서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다’에 대한 응답평균은 2.96, ‘현재 교양·기초교과목들은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다’에 대한 응답평균은 3.1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향후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to-be)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본적인 교과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3.5%가 ‘그렇다(46.1%)’, 혹은 ‘매우 그렇다(27.4%)’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직업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분야의 교과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인류의 지적인 유산과 관련된 고전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9%가 ‘그렇다(45.5%)’, 혹은 ‘매우 그렇다(18.4%)’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9.9%가 ‘그렇다(45.8%)’, 혹은 ‘매우 그렇다(24.1%)’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대학의 저학년(1,2학년)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3.9%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대학의 전 학년(1,2,3,4학년)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실시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1.8%가 ‘그렇다(42.5%)’, 혹은 ‘매우 그렇다(29.3%)’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교양·기초교과

〈표 8〉 향후 대학의 교양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to-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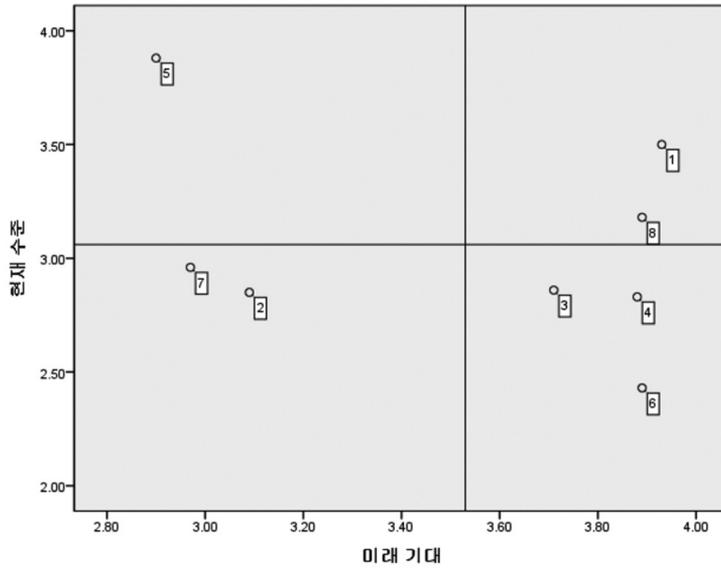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본적인 교과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26	70	170	101	369	3.93
	.5	7.0	19.0	46.1	27.4	100.0	.889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직업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분야의 교과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4	84	120	115	26	369	3.09
	6.5	22.8	32.5	31.2	7.0	100.0	1.037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인류의 지적인 유산과 관련된 고전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1	39	93	168	68	369	3.71
	.3	10.6	25.2	45.5	18.4	100.0	.896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3	15	93	169	89	369	3.88
	.8	4.1	25.2	45.8	24.1	100.0	.847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대학의 저학년(1,2학년)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0	125	92	97	25	369	2.90
	8.1	33.9	24.9	26.3	6.8	100.0	1.091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대학의 전학년(1,2,3,4학년)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5	35	64	157	108	369	3.89
	1.4	9.5	17.3	42.5	29.3	100.0	.979
향후 교양·기초교과목들은 교과목과 관련된 전공 학과에서 개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34	105	99	99	32	369	2.97
	9.2	28.5	26.8	26.8	8.7	100.0	1.127
향후 교양·기초교과목들은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개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4	31	65	169	100	369	3.89
	1.1	8.4	17.6	45.8	27.1	100.0	.934

단위: 명(%)

목들은 교과목과 관련된 전공학과에서 개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8.5%가 '그렇지 않다', 26.8%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교양·기초교과목들은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개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9%가 '그렇다(45.8%)', 혹은 '매우 그렇다(27.1%)' 라고 응답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응답자의 연속적인 인식 수준의 스펙트럼으로 생각하여,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 인식수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본적인 교과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에 대한 응답평균은 3.93,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직업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분야의 교과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에 대한 응답평균은 3.09,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인류의 지적인 유산과 관련된 고전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에 대한 응답평균은 3.71,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에 대한 응답평균은 3.88,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대학의 저학년(1, 2학년)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에 대한 응답평균은 2.90, '향후 교양·기초교육과정은 대학의 전학년(1, 2, 3, 4학년)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에 대한 응답평균은 3.89, '향후 교양·기초교과목들은 교과목과 관련된 전공학과에서 개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에 대한 응답평균은 2.97, '향후 교양·기초교과목들은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개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에 대한 응답평균은 3.89로 나타났다.

대학 교양교육 과정의 개선 요구도 분석을 위해 실시한 IPA매트릭스 분석 결과 경우, 아래 [그림 1]은 전체 참여자에 의해 인식된 교육과정 개선 요구도를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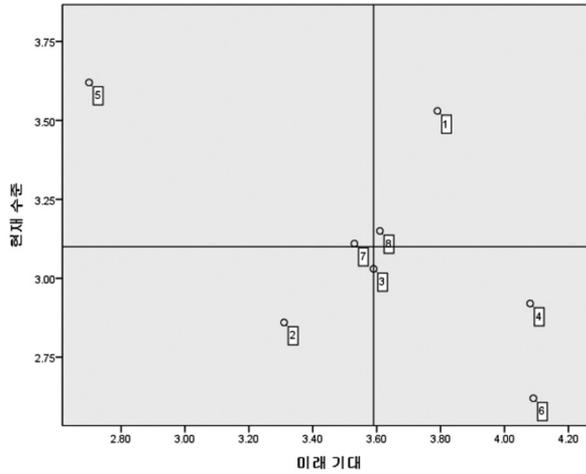
(그림 1) 교양교육 과정 개선 요구도⁴²⁾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들은 “(3)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인류의 지적인 유산과 관련된 고전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 “(4)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 “(6) 교양·기초교육과정은 대학의 전 학년(1, 2, 3, 4학년)에 걸쳐 골고루 분포” 항목과 관련하여 현재 수준에 비추어 미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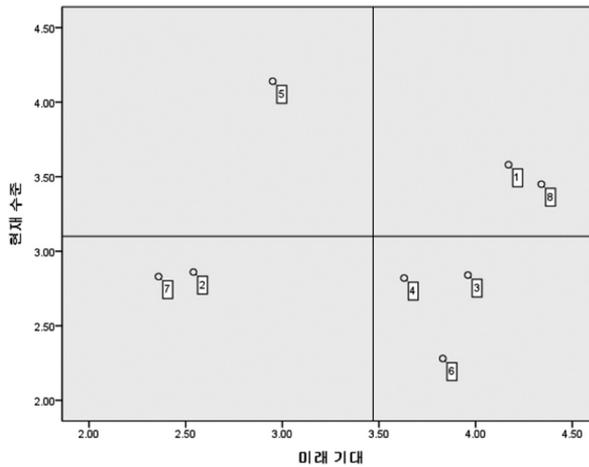
42) [1]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본적인 교과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되어야 한다. [2]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직업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분야의 교과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되어야 한다. [3]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인류의 지적인 유산과 관련된 고전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되어야 한다. [4]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되어야 한다. [5] 교양·기초교육과정은 대학의 저학년(1,2학년)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되어있다/되어야 한다. [6] 교양·기초교육과정은 대학의 전 학년(1,2,3,4학년)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실시되어있다/되어야 한다. [7] 교양·기초교과목들은 교과목과 관련된 전공학과에서 개설하여 운영되어 있다/되어야 한다. [8] 교양·기초교과목들은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개설하여 운영되어 있다/되어야 한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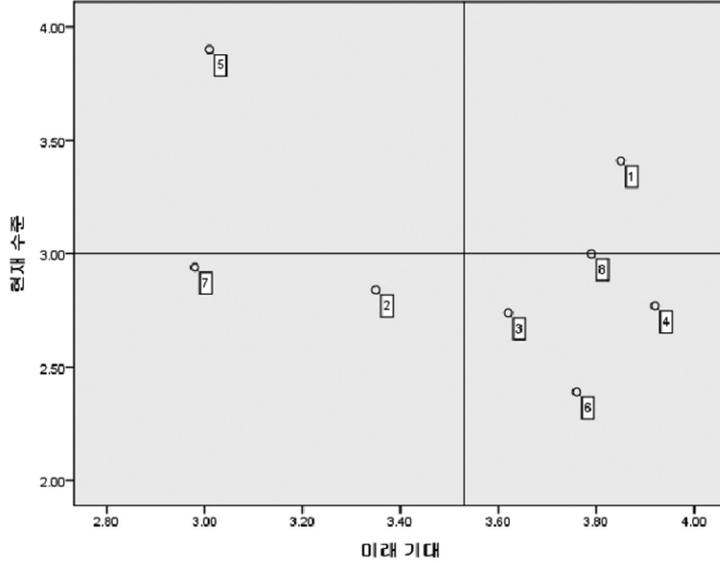
아래 [그림 2]는 교수집단에 의해 인식된 교양교육과정 개선 요구도를, [그림 3]은 학생집단에 의해 교양교육과정 개선 요구도와 [그림 4] 직장인에 의해 인식된 교양교육과정 개선 요구도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교수집단에 의해 인식된 교양교육 과정 개선 요구도



[그림 3] 학생집단에 의해 인식된 교양교육 과정 개선 요구도



[그림 4] 직장인에 의해 인식된 교양교육 과정 개선 요구도

개별 그룹별로 인식된 교양교육 과정 개선 요구도를 비교해 보면 교수 집단과 학생집단에 의한 요구도는 항목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집단에 의한 인식된 교양교육 과정 개선 요구도의 경우, [8] 교양·기초교과목들에 대한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개설 운영 항목이 추가로 개선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에서 교양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교수, 강사), 대학생,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의 개념 및 내용적 차원의 범위에 관한 인식 정도, 그리고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현재 수준 실태와 미래에 바람직한 당위 수준을 비교하는 교육과정 개선 요구도와 교

육만족도를 분석 하였다.

먼저 교양교육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양·기초교육은 다양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전인적인 인격체로서의 인간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라는 의견과 ‘교양·기초교육은 국한된 전공교육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보편적 지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에 조사 대상 집단 간 차이 없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양·기초교육은 특정분야의 전공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라는 질문과 ‘교양·기초교육의 목적은 전공교육을 지원하는데 있고 대학교육에서는 전공교육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전체 응답자의 30.5%, 31.0%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직장인은 대학에서의 교양기초교육이 ‘교양·기초교육은 특정분야의 전공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문항에서는 직장인 집단의 인식평균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교양·기초교육의 목적은 전공교육을 지원하는데 있고 대학교육에서는 전공교육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 문항에서도 직장인 집단의 인식평균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의 경우 지식의 ‘실용성’ 과 교육내용의 ‘현장 활용도’ 등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과학과 기술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실용적 교육에 대한 선호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어떠한 형태의 성과를 창출해야하는 데 있어 직장에서 필요한 실용적 지식과 기술의 현장 유용성에 대한 높은 요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양교육의 전통성과 실용성 간의 균형과 조화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데⁴³⁾, 교양교육의 실용성 문제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김

43) 이은화, 앞의 논문, 2007, 91-118쪽.

성원⁴⁴⁾의 연구에서는 교양교육의 목적이 실용적 가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인간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 및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양교육과 실용교육의 학제적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면서도 두 교육 영역 간의 상호보완적 융합교육을 통해서 제한된 지식의 틀을 확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⁵⁾.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바람직한 균형을 주장한 손동현⁴⁶⁾의 연구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양교육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면서 “교양교육이 중심이 되는 ‘보편적 지성교육’ 이 곧 ‘전문 직업교육’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직장인들이 교양교육에 대한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인식은 대학의 전공교육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장에서 필요한 ‘실용성’과 ‘현장 활용도’가 높은 지식은 교양교육이 아닌 전공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에서 찾아하며, 교양교육은 이러한 전공지식을 “폭넓고 깊이 있는 안목 아래서 조망하고 연결시켜 주는 지적 연결지평”⁴⁷⁾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둘째, 현재 대학의 전반적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41.9%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도 46.4%를 차지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교양교육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한 이보경 외⁴⁸⁾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교양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학사지도 제공, 행정서비스 수준, 교양과목의 수강생 수

44) 김성원, 「교양교육의 실용성 문제에 관한 제고」, 『교양교육연구』 제6권 2호, 2012, 43-77쪽.

45) 김성원, 위의 논문, 2012, 43-77쪽.

46) 손동현, 위의 논문, 2010, 24쪽.

47) 손동현, 위의 논문, 2010, 24-25쪽.

48) 이보경·김은경·이재성, 위의 논문, 2010, 1-23쪽.

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백평구⁴⁹⁾의 연구와도 유사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수집단이 가장 낮은 교육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양교육이 대학교육 전체에서 차지하는 낮은 위상과 개념적 정체성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으로부터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대학에서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에 비해 덜 중요하거나 학문적 깊이가 없고, 초급 단계의 기초지식을 다루는 여분적인 성격의 학문이라는 통념이 적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생의 교양교육과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유기웅, 신원석⁵⁰⁾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강좌 구성,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인의 능력신장 및 지원 등에 관한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교양교육을 편성, 개편 및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대학 교양교육이 전공교육과 동등하게 대학교육의 두 핵심 영역 중 하나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교양교육 위상 강화라는 과제는 보편적 지성교육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교육내용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교육과정 체계의 변화를 통한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연계 방안 확대, 교양교육 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수업 현장에서의 새로운 교수·학습 체계의 개발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교양교육에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 집단 간에 별다른 차이 없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양교육이 진로·취업 관련 교육, 컴퓨터 교육 등의 영역보다는 문학, 역사, 철학, 언어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관련 내용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

49) 백평구, 앞의 논문 2012, 431-466쪽.

50) 유기웅·신원석, 앞의 연구, 2012, 31-54쪽.

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교양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 핵심 영역(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기초영역(글쓰기, 말하기, 외국어 등), 그리고 나머지 영역(예컨대, 봉사 등 사회활동 관련 영역, 컴퓨터 교육 등 실용기술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현재 대학 교양교육과정은 개선 여지가 많으며 시대의 변화를 고려하여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해야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양교육과정의 현실적 모습(as-is)에 대한 인식과 향후 교양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to-be)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개선요구도로 분석할 결과, 우선 교양교육의 현실적 모습(as-is)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본적인 교과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7.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인류의 지적인 유산과 관련된 고전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4.1%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교양·기초교육과정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3.3%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세 집단 모두 현재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앞에서 이미 언급한 교양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대학의 교양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to-be)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본적인 교과목, 인류의 지적인 유산과 관련된 고전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 그리고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양교육에서 다뤄야할 내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교

양교육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이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교양교육과정의 구성이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최신의 내용의 반영’이라는 점과 동시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중심’이라는, 즉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과 ‘전통적 또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의 두 가지 가치가 상충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영역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교육내용까지도 옛 것에만 치중할 수는 없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문도 발전하고 변화하듯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내용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전되어 왔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진부한 내용위주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변화와 올바른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다섯째, 대학 교양교육은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닌 전 학년에 걸쳐 고르게 실시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지적 탐구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체집단 및 개별 그룹 별 IPA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 가지 항목에서 공통적 개선 요구가 높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인류의 지적인 유산과 관련된 고전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목, 그리고 대학 전학년(14학년)에 걸쳐 골고루 분포해야 한다는 요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 학문분야의 고전적인 내용이 교양교육에 반영되어야 함을 물론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화적 문제영역에 관한 창의적인 내용이나 이질적인 학문분야들을 가로지르며 주어진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논구하여 얻는 내용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교양교육은 저학년 학생만이 이수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요구는 향후 대학 별로

교양교육과정 개편 운영 시 주목해서 반영해야 하는 점이라고 본다. 한편 교양교육과정의 요구도 분석을 위해 실시한 IPA분석의 경우, 교수 및 학생 집단과 달리 직장인의 경우 교양교육 전담기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을 개선 요구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요구도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응답한 직장인들의 경우 교양교육을 전담한 대학 내 부서나 기구가 부재 했던 시절에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전담한 부서나 기구의 중요성이 주장되고 실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최근 추세라는 점이 직장인의 반응의 타당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양교육의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성과 및 만족도 지수 개발과 측정, 그리고 그 성과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후속연구가 필요시 된다. 또한 교양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양적연구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적 방법론에 의해 교육성과와 효과성을 접근하는 연구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양교육과정 요구도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양교육은 해당분야 전공교육을 낮은 수준에서 시행하는 초보적인 교육으로 간주하여 대학 교육과정상 저학년에서 집중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과 개편의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어문교육(읽기, 글쓰기, 말하기, 의사소통, 한문 교육 등), 정보기술교육(컴퓨터 교육 등), 사고교육(논리학, 수리적 사고, 통계적 사고, 비판적 사고 교육 등) 등의 기초교육은 저학년에서부터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더불어 대학교육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으로 전공교육과 나란히 전 학년에서 제공되도록 교육과정 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와 실천이 요구된다.

셋째,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특정 직업과 직결되는 영역과 관련된 교육은 교양교육의 내용으로 지양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대학 구조 및 학사 구조상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전공학과의 의사결정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에서는 전공학과의 일정 ‘지분’을 확보하려는 경향으로 올바른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⁵¹⁾⁵²⁾. 교양교육은 특정 전문분야의 지식과 융합과 연계를 통해 결국 특정 직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의 함양에 기본 자양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양교육과정의 개발과 편성에 반영해야할 것이다.

51) 서남수, 앞의 논문, 2010, 1-18쪽.

52) 손동현, 앞의 논문, 2010, 24쪽.

참고문헌

- 강명구·김지현, 「한국 대학의 학사구조 변화와 기초교양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과제」, 『아시아교육연구』, 11(2), 2009, 327-361쪽.
- 강창동,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8(2), 2012, 83-107쪽.
- 김성원, 「교양교육의 실용성 문제에 관한 재고」, 『교양교육연구』, 6(2), 2012, 43-77쪽.
- 김순임·이효성·김현정·서명희, 「대학 교양교육의 흐름과 발전 방안- 전남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7(1), 2013, 11-39쪽.
- 김원형, 「교양 필수 과정의 트랙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적 교양 교육 개발」, 『교양교육연구』, 2(1), 2008, 33-61쪽.
- 남식용·이병철, 「교양기초교육과정 운영 사례: 성균관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3(1), 2009, 145-166쪽.
- 민춘기·김순임, 「과정과 문화 중심의 교양교육 개선」, 『교양교육연구』, 6(3), 2012, 11-47쪽.
- 변순용·김민수, 「교육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6(4), 2012, 203-236쪽.
- 백승수, 「한국 고등교육의 교양교육과정 형성과정 분석」, 『교양교육연구』, 6(4), 2012, 321-352쪽.
- 백평구, 「교양교육 만족도, 교육적 경험, 학습 성과에 대한 인식: A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6(1), 2012, 431-466쪽.
- 서남수,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구조적 난점과 과제」, 『교양교육연구』, 4(2), 2010, 1-18쪽.
- 손동현, 「융복합교육의 기초와 학부대학의 역할」, 『교양교육연구』, 3(1), 2009, 21-32쪽.
- 손동현,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균형과 수렴에 관해」, 『교양교육연구』, 4(2), 2010, 19-27쪽.
- 손동현, 「분과학문과 교양교육의 불협화, 그 연원과 현실 그리고 전망」,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 31-41쪽.

- 손동현·박주호·유기웅·정종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2.
- 염철, 「대학 교양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양논총』, 4, 2011, 49-66쪽.
- 유기웅·신원석, 「대학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및 강의 선택 관련 요인 분석」, 『교육문제연구』, 45, 2012, 31-54쪽.
- 이보경·김은경·이재성, 「대학생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문제연구』, 38, 2010, 1-23쪽.
- 이숙정·이수정,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역량기반 교양교육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6(2), 2012, 11-42쪽.
- 이은숙·황혜영, 「융복합 교양교육의 토대로서의 창의성」, 『교양교육연구』, 7(2), 2013, 103-136쪽.
- 이은화,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편성 운영체제 사례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8(2), 2007, 91-118쪽.
- 정치봉, 교양·「기초교육과정에 대한 교수·학생의 인식 비교- 설문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순천향자연과학연구』, 8(2), 2002, 123-132쪽.
- 최미리, 「한·미 주요 대학의 교양교육 비교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8(2), 2000, 299-328쪽.
- 홍병선, 「대학교육의 현실과 사회적 요구」, 『교양교육연구』, 6(2), 2012, 269-291쪽.
- Martilla, J., & James, J.,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1977, pp.77-79.

※ 이 논문은 2014년 3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4년 3월 28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 뒤
2014년 4월 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2014년 4월 1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

◆Abstract◆

The Analyses of the Concepts, Contents, Satisfaction and
Future Needs for College General Education

Park, Joo-Ho(Hanyang University)

Ryu, Kiung(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cepts, contents, satisfaction and future curriculum needs for instructors, students, and workers for college general education. Using an online survey, this study recruited 441 subjects (125 instructors, 135 students, 181 workers) from the various universities and companies. We conducted analysis of variance (ANOVA) for multiple comparisons and 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IPA) for measuring and comparing the importance, satisfaction, and future needs of college general education.

The analyses show that the overall college general education satisfaction is low. With regards to the concepts and contents of college general educa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formation of the whole and autonomous human beings and general education that seeks the truth in knowledge are emphasized in college general educ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area of humanities, social science, and natural science should be taken more into account when preparing and developing future curriculum of general education in colleges. Further

more, IPA shows that there are increasing needs for the academic subjects like classics emphasized life of human beings and intellectual heritage, the state-of-the-art and critical issues of the contemporary world, and courses for every students to challenge them at every level.

Key Words : General education, Satisfaction with general education, 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Needs analysis